****

**선교 활동 보고**

**재난의 위기에 처한 삶**

베르나데트는 최악의 상황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넘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시리아의 계속되는 인도주의적·경제적 위기, 내전, 무너져가는 인프라를 흔들림 없이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시리아와 터키를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https://www.cnn.com/middleeast/live-news/turkey-earthquake-latest-020623/index.html)의 여파로 그녀의 집이 바로 발 밑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웃이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를 떠나 안전한 곳을 찾아 갔지만, 베르나데트의 가족은 집에 남아야 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다른 곳으로 이사도 어려웠습니다. 매우 적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가족의 소득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족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 보호소, 교육, 의료 및 기타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미국장로교의 오랜 협력체인 [중동교회협의회](https://www.mecc.org/)(MECC)는 시리아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MECC의 인도주의적 사명은 부분적으로는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PDA)의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기금은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헌금'에 보내주시는 장로교인들의 관대한 기부로 지원됩니다.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헌금'은 장로교 기아 퇴치 프로그램(PHP), 장로교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SDOP)의 사역을 또한 지원합니다.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확보할 수 없을 때마다, 사람들은 식사를 줄이거나 아동 노동에 의존하는 등 부정적인 대처 메커니즘을 채택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시리아를 떠나기도 합니다"라고 사메르 라함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MECC의 지부 중 사회 서비스, 인도주의적 서비스, 개발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디아코니아](https://www.mecc.org/diakonia)의 지역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시리아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데트 가족같이 알레포 지진으로 집이 파손된 가족을 도와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튼튼한 건물을 제공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건물이 안정화되고 아파트가 재건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모두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곁에 서서 헌금을 모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가 조국에 남아 기독교 신앙을 계속 증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라함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매우 신속하게 기부에 동참하지만, "직면한 위기가 지나가면 예전과 같은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했습니다.

"그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매우 위급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헌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신호가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팀이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념의 일부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있는 이들을 돕도록 아낌없이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보태면,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매일 매순간 절박한 환경에 처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헌금이 모든 면에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지원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